

The High Cost of Fear

공포의 값비싼 대가

한국 탈원전 정책의 원인과
초래하게 될 경제적, 환경적 영향의 이해



Michael Shellenberger, Mark Nelson, Madi Czerwinski,
Michael Light, John Lindberg, and Minshu Deng 저

August 2017



원전 포기... 원전 포기는 비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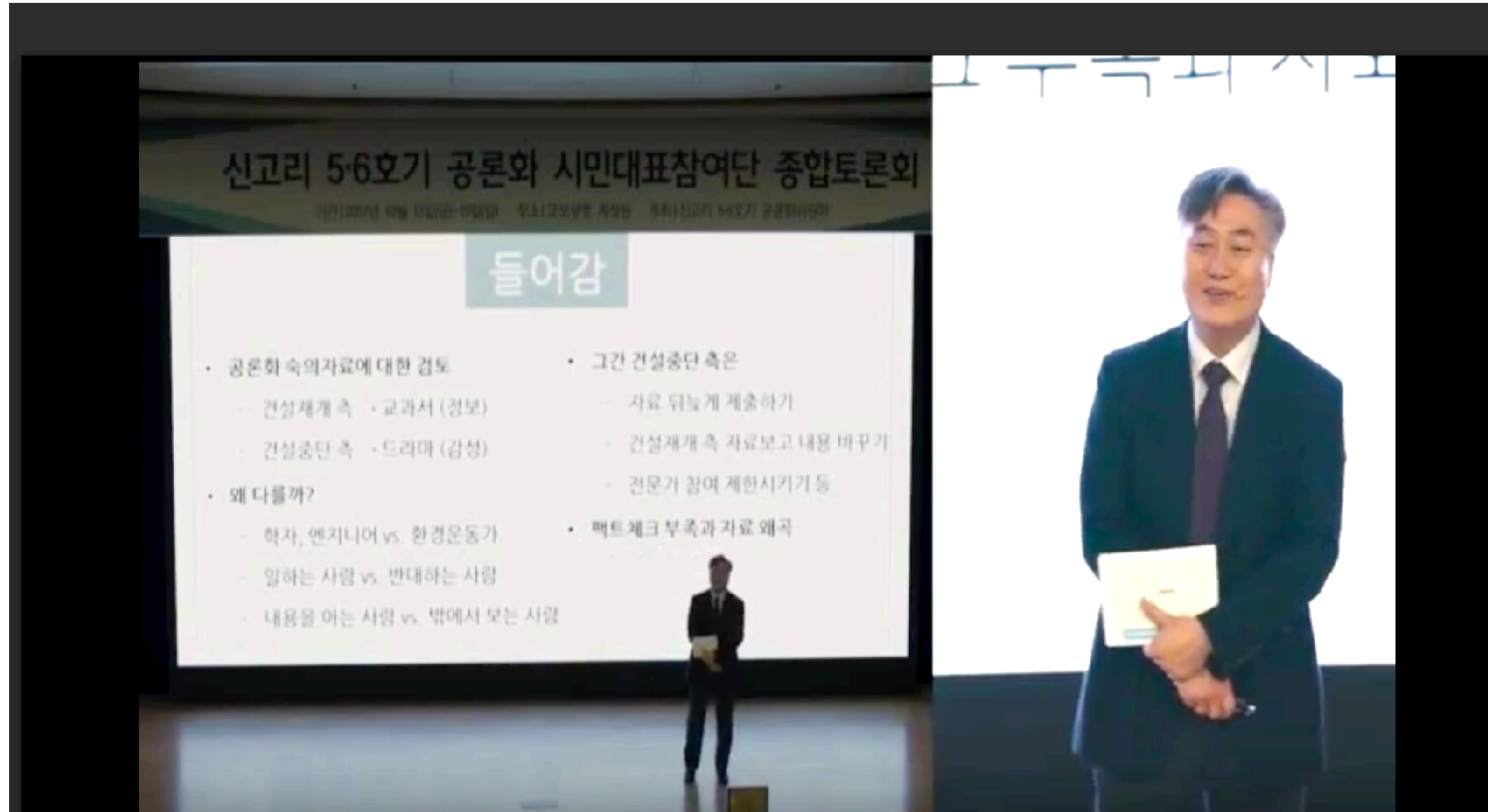
5일 마이클 셸렌베거(오른쪽) '환경 진보' (대표가 본부구에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찾아 미국 내 전문가 그룹 30명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지베한 시무크에게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원자력발전용 하는 원전 선진국"이라며 새 정부의 원전 재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아진다." - 자시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넷플릭스(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완전 재난을 다룬 한국 영화 '관도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영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관람했다.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영화다. 한국의 새 정부는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겠다는데 나라의 영혼이 걸린 에너지를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원전은 악(惡)'이라는 프레임과 간담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에서 머문 시간만 20여 명을 인터뷰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에 원전 재조정을 재고하도록 뛰었다. 에너지는 백년대계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계산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김은중 기자



마이클 셸렌베거 환경운동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싱크탱크 활동을 했고, 재생 에너지로는 충분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Professor Bum-Jin Chung persuades South Korea's "citizens jury"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종합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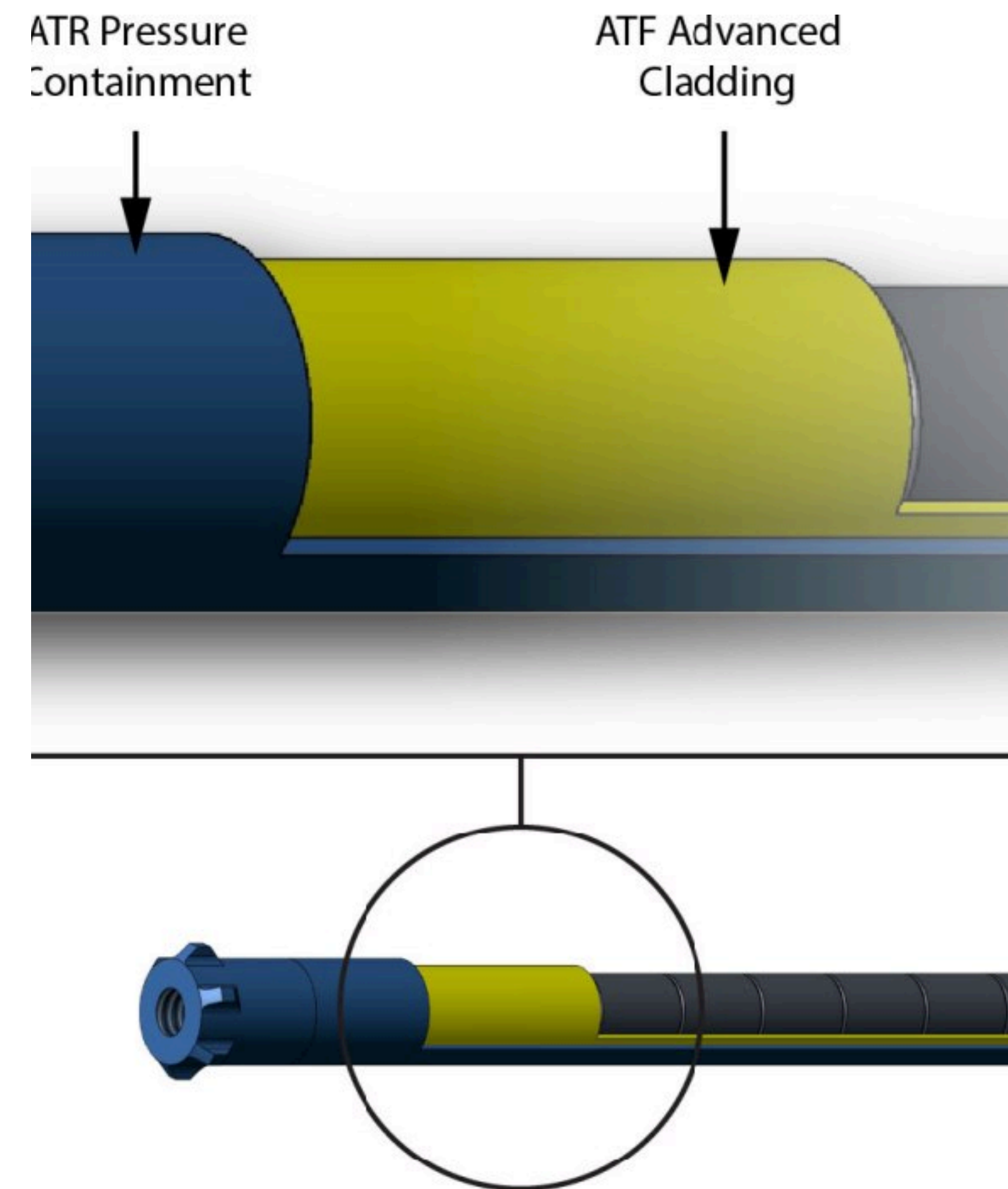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소 주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사업

들어감

- 공론화 속의 자료에 대한 검토
 - 건설재개 측 - 교과서 (경보)
 - 건설중단 측 - 드라마 (감성)
- 왜 다를까?
 - 학자, 엔지니어 vs. 환경운동가
 - 일하는 사람 vs. 반대하는 사람
 - 내용을 아는 사람 vs. 밖에서 보는 사람
- 그간 건설중단 측은
 - 자료 뒤늦게 제출하기
 - 건설재개 측 자료보고 내용 바꾸기
 - 전문가 참여 제한시킴 등
- 팩트체크 부족과 자료 왜곡

Accident-Tolerant Fuels

- Could delay meltdown ~8 hours after loss-of-coolant
- Would prevent hydrogen gas explosion
- Could make today's Gen II reactors into Gen IV equivalent
- Could reduce operations costs by 15 - 30 percent
- Being loaded into two US nuclear plants this fall and next spring
- Could be in all US plants by mid-2020s



Transcendent Moral Purpose

Only nuclear can lift all humans out of poverty while saving the natural environment while creating peace on earth.

